

아! 봄날씨같이 포근한 님...



불화 속의 명 장면 (10)

日 교토 천옥박물관 소장 '수월관음도' (하)

금강보석 기암좌에 걸터앉은 수월관음의 발치 아래에는, 냇물이 흐르고 진귀한 산초와 보련화가 피어오르는 연꽃이 있습니다(그림1, 그림3, 그림4). 그 좌측 끝단에는 자그마한 선재동자(善財童子)가 무릎 꿇고 합장하며 예를 올리고 있습니다(그림2).

선지식(眞理)을 찾아가려는 여정을 떠나 해매는 선재의 간절한 눈빛과, 이를 굽어보는 자애로운 수월관음의 눈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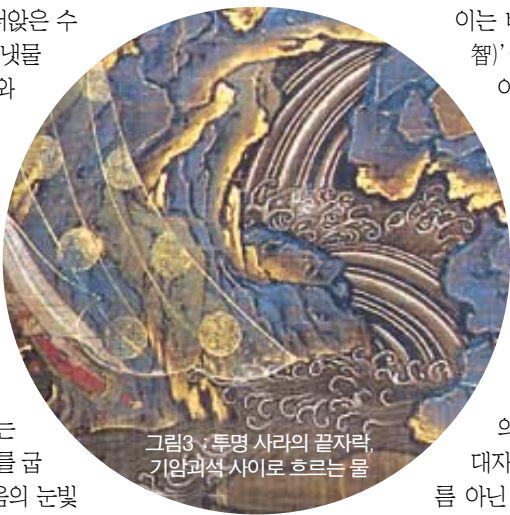


그림3 : 투명 사리의 끝자락 기암과 산초 사이로 흐르는 물

이는 바로 '지혜의 광명(一切智智)'을 얻음으로서 가능한데, 이 무명의 어둠을 사르는 청정한 달빛과 같은 지혜의 빛은 곧 대비력(大悲力)의 작용이기도 합니다. 한없이 미치지만 결코 다함이 없는 무공무진한 보살의 대자비심은 밝은 달뿐만 아니라, 대지(大地)·큰 바다·밝은 해·큰 구름·큰 비 등의 작용에 비유되기도 하여, 대자연의 법(大自然之法)이 다름 아닌 대지혜의 법(大智慧之法)

하는 포괄적이고도 상징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지난 회(연재9회)에 언급한 수월관음도의 여러 특징 중에서도 가장 큰 도상학적 특징은, 수월관음에서 발산되는 달빛과 같은 '청정(淸淨)한 자비의 광명(光明)'입니다. '등근 보름달은 원만한 대비장(大悲藏)이고 이 대비장의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 조복하게 하여 마침내 피안에 이르게 한다'라고 합니다.

세상 어디나 구석구석 비추어주는 해(無量光, 普光明)? 어디에나 내려 일체 만물을 적시어 윤택함을 더하는 은혜로운 비(法雨)·세상의 모든 강에 그 모습을 드러내는 달(水月), 그리고 보니 해로·달로·구름으로·비로·바람으로, 법계에 충만한 이러한 법신(法身)의 방편들로 일체 중생은 항상 그 무량한 은혜 속에 둘러싸여 있었군요.



그림1 : 원만한 수월관음의 얼굴과 달과 같이 둥근 두광

'선지식과 만남'이란 주제 넘어 화엄경 전체 의미 함축 부드럽게 감싸주는 온화한 달빛, 대비력(大悲力)의 작용

은 드디어 만나고 있습니다.

주지의 사실대로, 수월관음도(水月觀音圖)는 화엄경 <입법계품>의 제28번째 선지식인 관자재보살과 선재가 대면하는 장면이 그 교리적 연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짧은 대목만 가지고는 '수월관음(水月觀音)'이라는 그 명칭서부터 뭔가 풀리지 않는 도상학적 과제가 많이 남습니다.

선재동자의 기나긴 구법(說法)의 여정에 일관되어 관통하는 화두(話頭)는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菩薩行)을 배우며 보살도(菩薩道)를 닦느냐'라는 것. '어떻게 부처님 친견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또 여러 보살들과 선근(善根)을 같이 할 수 있는가(上求菩提 下化衆生)', '보살이 어떻게 유위(有爲)를 버리지 않고, 또한 거기에 머물지도 않으면서(無爲) 보살행을 하는가'.

이 상반되는 유위와 무위, 정반합(正反合) 병행의 미학(美學)이 바로 '물(水)에 비친 달(月)' 그림자입니다. 기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고 솟았다가 나타나기도 하고, 혹은 한 몸 또는 여러 몸으로 나타내기도 하는 결집 없는 대비행(大悲行)의 해탈문, 구경무애(究竟無礙)의 보살행(菩薩行)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의 달로 천 개의 강에 그 모습을 드러내는, 하나의 달에서 무수한 달을 내는 '월인천강(月印千江)의 묘법(妙法)'이기도 합니다.

임을 말해 주기도 합니다.

선재동자는 '보살행이 무엇인가' 그 가르침을 구하러는 문수보살의 첫 계시를 받고, 비구·장자·우바이·뱃사공·여인 등의 많은 선지식을 거칩니다. 위에 언급한 관자재보살과의 대면은, 이러한 길고도 고단한 구도의 편력 이후, 선재동자가 처음 '보살'이라는 존재와 만나는 역사적 순간이기도 합니다. 남쪽 바다 위에 산이 있어 이름 하여 광명(光明)이라고 하고, 그 산에는 관세음보살이 계시고 그는 이



그림2 : 선지식(善知識)은 어디에(구도하는 선재동자)

미 '대자비 광명의 행'을 증득한 보살이라 하니, 수월관음도에 나타나는 기본적인 도상의 형식은 이 <28번째 선지식인 관세음보살과의 대면 장면>에서 비롯된 것이 확인 안 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수월관음도>에는 단지 이 장면에만 근거한다는 협의적인 의미를 넘어선, 화엄경 전체를 관통하는 '보살(菩薩)'을 대표

증생의 번뇌가 뜨거울 불이라면 이를 식혀주는 것은 청정한 자비의 달빛입니다. 노자에는 이러한 청정(淸淨)함에 대한 강단명료하면서도 기막힌 정의가 실려 있습니다.

'열기는 냉기를 이기고/정량은 열기를 이깁니다/청정(淸淨)이 곧 천하 안정의 묘약입니다'

대자연을 번뇌 식혀주는 법신으로 사용, 중생 조복케 물에 투영되는 달그림자는 머뭇없는 묘행(妙行) 상징

선재동자가 선지식을 찾아 남쪽 해변가를 순례하던 중, 큰 바다에 큰 비가 내려도 가득 차지 않음을 관찰하고 다음과 같이 스스로 깨달았다고 합니다.

'선지식의 가르침은 봄날씨와 같이 모든 선근(善根)의 싹을 자라게 하고, 선지식은 마치 보름달과 같이 청량한 교법의 광명으로 모든 곳을 서늘히 비추어 번뇌를 없애네'

지난 어느 화창한 봄날, 그 따사로운 빛을 받으며 양산 통도사의 적멸보궁을 둘러보고 있었습니

다. 그 기둥의 주련(柱聯)에는 다음과 같은 주유(楹聯)가 흐르고 있습니다. '달이 은하수에 걸리고 뒤여 둥근 모습이루니 / 맑은 얼굴에서 빛을 놓아 대전체 계 비추네 / 원승이가 팔을 내어 부질없이 못 속의 달을 건지려 하지만 / 고독한 달은 본래 청천에서 떨어지니 바 없고 / 묵묵히 보리(菩提) 대도심(大道心)과 계합하고 있네.'

강소연(미술사학자·홍익대학교 겸임교수)



그림4 : 미중에 휘날리는 웃자락과 수월관음의 발

알기쉬운 佛敎 儀式

新刊 通用佛敎儀範 案内



귀의삼보하옵고 불교란 어떤종교인가? 깨달음의 종교이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업과에 의한 윤회를 받고 보살행을 실천하여 성불하기를 염원하는 종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방하는 불제자로서 의식법전의 순서의 어려움이 많아 수행하는데 우왕좌왕 하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모든 불교의식집을 참고로 하여 의식을 간편하게 편집하였습니다.

의식이란 보는 이에 따라 甲論乙駁이 있었으나 수행 초심자가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할 때 이 의식집을 펴면 편 페이지를 찾지 아니하고 모든 의식을 집전할 수 있도록 편집되어 있습니다.

▶ 총 1099페이지 법보가 ₩45,000

■ 동용불교의범 특징

불보살 모든 불공의식은 불공의식 대로 편집되었으며 제목만 찾으면 모든 불공을 모실 수 있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인 것입니다.

- 제1장 승주편 제2장 예경편 제3장 전각예경편 제4장 불공편
- 제5장 모든법회 제6장 방생 제7장 재불보살경의식 제8장 파불의식
- 제8장 점안편 제9장 이운편 제10장 수계편 제11장 고사편



알기쉬운 齋禮 儀範

新刊 通用齋禮儀範 案内



천지간 만물지중에서 유인이 최귀하고 유 만물지 중에서도 유인이 가장 귀한 사람이 있으면 예(禮)가 있고 예(禮)가 있으면 의식(儀式)이 필요한 것입니다.

불교의 1700년 역사속에 細節(細節)을 집합한 의식집이야말로 참으로 고귀하고 완벽한 의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한문으로 된 의식집을 가지고는 어느 것을 먼저하고 어느 것을 뒤에 하는지 순서를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때가 비일비재(非一非再)합니다.

또한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빠르게 변화하는 오늘날 현실속에서 제례의식을 현실에 맞추어 모든 불교의식집을 토대로하여 초보자라 하더라도 집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총 1180페이지 법보가 ₩45,000



대한민국 불교 교단에 계시는 모든 스님들께 소속 법진이 합장하고 고개 숙여 인사 올립니다. 소속이 2년 동안 부처님의 가피력을 2권의 불교의식집을 출간하여 모시오니 사용해보시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무 마하반야바라밀

- 제1장 시식편 제2장 장의편 제3장 다비편 제4장 매장
- 제4장 四十九齋 입재(入齋) 삼우재(三虞齋) 초재(初齋) 이재(二齋) 삼재(三齋) 사재(四齋) 오재(五齋) 육재(六齋) 칠재(七齋)
- 제5장 재공편 상주권공 삼정례 천수다라니 지장정 영산대제 괴불이은 건희소 영산작법 영산각배 운수상단 운수중단 배송(拜送) 예수십왕생탈채(預修十王生七齋)
- 제6장 기제사 제7장 靈魂結婚壇

■ 주문처 : 호국불교효예중 총무원 출판부 ■ 발행처 : 도서출판 도 승 ■ 편·저자 : 법왕불교대학장 신 법진 합장

☎ 02) 963-0607, H.P:017-361-1131 ☎ 043) 264-3008, H.P:011-9607-2199 주소 : 서울시 등대문구 이문2동 421-3번지 ■ 국민은행 : 027701 - 04 - 060958 ■ 우체국 : 013409-01-001220 예금주 : 호국불교효예중 총무원